



주간통일정세 2011-43(2011.10.17~10.2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1-43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 김정일, 함주군 협동농장 현지시찰(10/17,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는 동봉협동농장을 현지시찰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 위원장은 농장 연혁소개실을 둘러보고 올해 농사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了解, 실태파악)한 뒤 일조율이 낮고 냉해가 심한 악조건에서 계획을 달성한 것을 치하했다고 중앙방송은 전함.
- 김 위원장은 "땅의 지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고 작물재배 과정에서 우월성이 입증된 다수확 품종의 종자들을 적지에 배치해야 한다"며 "두벌농사를 더 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며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 현지시찰에는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도춘 당 비서, 곽범기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리재일·박봉주·한광상 당 제1부부장 등이 수행

##### ● 김정일 부자, 인민군 감나무중대 공연 관람(10/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민군 3중3대혁명붉은기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감나무 중대는 동해안에 있는 여성 해안포중대로, 김 위원장은 지난 1995년 2월 이 부대를 첫 시찰한 이래 2009년까지 5회 이상 찾아가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함.
- 이날 무대에는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설화와 합창 '초소의 감나무야', 2중창 '우리 군대 우리 인민', 합창시와 합창 '여성 해안포병의 노래'등이 올랐으며, 김 위원장의 공연관람에는 김정은 이외에도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리두성 인민군 중장 등이 수행

##### ● 北 "붕괴론 언급 美, 대화 진정성 의문"(10/1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19일 최근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신뢰조성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상대방의 제도를 헐뜯는 것을 보면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입만 벌리면 억압정책이요, 붕괴요 하면서 우리를 헐뜯고 있다"며 "이는 현 미국 정부도 전임자들처럼 우리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적대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
- 대변인의 언급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정부가 언제 갑자기 붕괴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일 "6자회담 조건 없이 조속 재개해야"(10/19,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북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 특파원을 두고 있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이행하며, 그럼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조
-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함.
- 김 위원장은 이어 "한반도 핵문제는 우리 인민의 주권과 안전을 끊임 없이 위협하는 미국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공개적 핵 위협과 가중되는 적대 정책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 역지력을 보유하는 길을 택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
- 김 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만일 미국이 지금이라도 조선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힘.
- 그는 "미국은 이번 세기 들어 조선에 대한 적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방향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상황을 위기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북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둔다면 우리와 일본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북러관계와 관련, "현재 조선과 러시아에서는 가스관 부설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역동적으로 취해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 김 위원장은 "가스관 부설, 철도 연결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러 양국 경제협력 관계 발전은 양국 국민의 이해에 부합하며 지역 번영도 촉진할 것"이라며 "공화국 정부는 러시아 측과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일·정은, 석달만에 군부대 시찰(10/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4304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
  - 김정일 부자가 군인들의 공연 관람이 아니라 군부대를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는 지난 7월25일 해군사령부 시찰 이후 3개월 만임.
  - 김 위원장은 "기본 전투단위인 중대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말했으며, 시찰에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 리두성 인민군 중장 등이 수행
- **김정일, 방북 러시아 아무르주 주지사 접견(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방북 중인 올렉 코제야코 러시아 아무르주 주지사 일행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러시아 방문기간 아무르주 '부레이 발전소'를 찾았을 때 아무르주 관계자와 주민이 환대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코제야코 주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르주가 이 합의정신을 실현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로조 친선협조의 모범을 창조하는 주(州)가 되겠다"고 말함.
  - 접견에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태종수 당 비서, 리영철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배석함.
- **北리종혁 내달 6일 독일 방문(10/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리종혁 조선-독일 친선의원협회 위원장이 다음달 6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리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남·북·미 3자 트랙 2'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을 차별 없이 대해주고 5·24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
  - RFA는 "리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6명이 11월6일부터 3일 동안 독일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문은 조독 친선의원협



회 독일 대표인 스테판 물러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전함.

- 북한 대표단은 독일에 머무는 동안 의회 방문 외에 크레펠트시에 있는 독일의 대표적 철강업체 티센그룹을 시찰하고 곡물생산 농장도 돌아볼 예정

● **北김영남·최영림, 대동강 돼지공장 등 참관(10/21, 조선중앙TV)**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당정간 부들이 21일 대동강의 돼지공장과 자라공장, 그물공장 등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김정일, 군부대·돼지공장 현지시찰·지도(10/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985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이날 시찰에는 김정은 외에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경옥 당 중앙군사위원,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현지 시찰(10/17, 중통·중방)
- 김정일, 감나무중대 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10/18, 중통·중방)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4304군부대와 관하중대 시찰(10/19, 중통)
- 김정일, 10.20 러시아 아무르주 장관(올레그 꼬쨌야코) 일행과 담화 및 만찬(10/20, 중통)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85군부대 지휘부 시찰 및 광덕돼지공장 현지지도(10/22, 중통·중·평방)
- 김정일, 함경남도 안의 일꾼들과 노력혁신자들·과학자·기술자들 위해 연회 마련(10/23, 중통)
  - 김정은, 이영호, 김기남, 최태복, 장성택, 김정각, 박도춘(연설), 최용해, 태종수, 문경덕, 우동축 등 참가



■ 기타 (대내 정치)

- 北 노동당(김영일' 黨 비서)과 베닌 사회주의당 대표단('알리 후두') 사이 회담, 10.18 평양에서 진행(10/18, 중통)
- 박의춘 외무상, 10.18 만수대의사당에서 유엔인도주의사업담당 부 사무총장('발레리에 아모스') 일행과 담화(10/18, 중통)
- 北 노동당(김영일' 黨 비서)과 베트남 공산당('황 빙 꾸언' 대외부장) 사이 회담, 10.21 평양에서 진행(10/21,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0.21 '희천발전소건설기념메달'(희천발전소건설자들의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함) 제정 '결정'(10/22, 중통·중방)
- 중앙양묘장 종업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 10.22 김창룡(국토환경보호상) 등 참가자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궤기모임 진행(10/23, 중방)

나. 경제

● 연변 삼합통상구 올해 北中교역량 287% ↑ (10/17, 연변일보)

- 두만강 유역의 북한과 중국 교역 거점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용정(龍井)시 삼합(三合)통상구의 북·중 교역량이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삼합통상구의 북·중 교역량이 10만5천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증가했으며 이 통상구를 거쳐 북한을 오간 양국 무역상도 2만3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 늘었다고 연변일보가 17일 보도
- 신문은 매일 철광석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꼬리를 물고 북한 회령을 통해 삼합통상구로 넘어오고 있으며 기계 설비와 농약, 식량 등을 채운 트럭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함.
- 삼합통상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북한당국이 광산 자원의 수출 규제를 완화, 철광석의 중국 유입이 크게 늘었으며 중국산 농약과 화학비료, 기계 설비 등의 북한 수출도 증가 추세"라며 "교역 물량이 많을 때는 통관 처리를 하느라 통상구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함.
- 용정시는 대북 교역 활성화를 위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북한도 수출·입 화물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지하자원 수출 물량과 중국산 곡물의 수입 쿼터를 늘리는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함.

● "30대 北관료들 싱가포르 경제 배우길 원해"(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경제개발 연수에 참석했던 북한 관료들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이번 연수를 주최한 제프리 시 조선익스체인지 회장은 "북한 관료들이 주로 30대로 젊은 세대라 그런지 매우 개방적이었다"며 "싱가포르의 경제정책 중에서 어떤 점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함.
  - 시 회장은 또 "북한 관료들이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과 정책이 매우 인상 깊다며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배우고 싶다고 했다"며 "그들은 한 국가의 정부가 건전한 경제정책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더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전함.
- **北무역성-러 아무르주,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10/18, 조선중앙통신)**
    - 무역성과 러시아 아무르주(州)가 18일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합의서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고 전함.
    - 평양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 서길북 무역성 부상, 심국룡 나훗카 총영사 등이 나왔고, 러시아 측에서 올렉 코제먀코 주지사와 발레리 수히닌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
    - 러시아 극동의 아무르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러시아 방문때 찾은 '부레이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9월에는 북한 농업대표단이 이곳을 찾아 농지 임대를 비롯한 농업분야 협력을 논의
    - 아무르주 주정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에서 "북한 노동자 초청, 상호 관광 교류, 에너지 분야 협력, 농지 임대, 목재 가공 협력 등을 논의했다"며 "북한 측과 경제협력에 관한 포괄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힘.
  - **IFAD "대북 농업대출사업 재개계획 없어"(10/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무역성과 러시아 아무르주(州)가 18일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합의서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고 전함.
    - 평양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 서길북 무역성 부상, 심국룡 나훗카 총영사 등이 나왔고, 러시아 측에서 올렉 코제먀코 주지사와 발레리 수히닌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
    - 러시아 극동의 아무르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러시아 방문때 찾은 '부레이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9월에는 북한 농업대표단이 이곳을 찾아 농지 임대를 비롯한 농업분야 협력을 논의
    - 아무르주 주정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에서 "북한 노동자 초청, 상호 관광 교류, 에너지 분야 협력, 농지 임대, 목재 가공 협력 등을 논의했다"며 "북한 측과 경제협력에 관한 포괄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힘.
  - **"유엔, 北 식량부족 과장 가능성 조사"(10/20,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는 20일 유엔이 북한의 식량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부풀리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



- 르 몽드는 이날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발레리 아모스 국장이 지난 1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 식량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함.
- 신문은 북한 안전요원들이 유엔 직원과 국제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이번 유엔의 실태 조사는 국제사회의 의문을 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
- 르 몽드는 이달 초까지 유엔이 약속한 2억 달러어치의 대북 원조 가운데 3분의 1만이 집행되고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물량도 지난 여름부터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지난 5월말 자체 조사단을 파견했던 미국이 대북 지원식량의 전용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나타난 것이라고 말함.
- 신문은 미국과 한국의 경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시키려는 국제사회의 경제재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따라서 유엔은 대북 원조를 재개하기에 앞서 식량부족 실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함.

#### ● 北 올가을 수확, 식량난 해결에 미흡(10/21, 연합뉴스)

- 북한의 올가을 농작물 수확이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에 파견된 국제원조기구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올여름 홍수와 치솟는 국제곡물가격, 핵무장한 이 나라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원조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임신부들까지 서서히 굶주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뉴스는 전함.
- 원조기구 관계자들은 북한의 원시적 영농기술, 경작지 부족 외에 식량을 빼돌려 군과 당간부들에게 지급했을 가능성까지 겹쳐 북한 식량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
- 월드비전과 머시코프 등 5개 원조단체는 지난달 26일 미국 국제개발청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매우 심각한 식량난 가능성"에 직면해있다고 밝힘.
- 이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식량 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3개도를 돌아보고 나서 6개월-9개월 후 곡물 비축량이 바닥날 경우 훨씬 심각한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해 함흥 일원의 병원과 학교, 고아원 등을 돌아본 발레리 아모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장은 "아동영양실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 "北 지역·계층 차별배급으로 식량지원 어려움"(10/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배급체계가 거주 지역과 계층에 따라 식량 배급을 달리하고 있어 대북식량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럽 구호단체를 인용해 22일 전함.
- 헬프페이지(Helpage), 의료구호기구 멀린, 노르웨이난민위원회 등 유





협의 3개 국제구호단체로 구성된 '재난평가프로젝트'는 최근 북한의 재난현황과 구호단체의 지원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

- 이 보고서는 "구호단체의 식량지원이 북한 정권을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어 인권탄압 피해자나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식량 배급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도, 강원도 주민 약 680만 명 중 약 3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는 평양과 인접한 평안도, 황해도의 주민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라고 밝힘.
-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식량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구호단체들이 북한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 中 "올해 북한과의 교역 87% 증가"(10/23, 신화통신)

-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북한 방문에 맞춰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고 중국 관련 신화통신이 23일 보도
- 신화통신은 그러나 양국 간 교역 증가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음.



#### ■ 기타 (대내 경제)

- '홍남가스화 1계열공사 완공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를 통해 "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으로 2년반 사이에 완공, 첫 비료를 생산하였다"며 "자력갱생의 혁명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고 自讚(10/17, 중통·중방)
- 이용남(무역상) ↔ 러시아 아무르주 장관(올레그 꼬쨌야꼬), 10.17 평양에서 회담(10/17, 중통)
  - 전력공업성 1부상 '김만수', 러시아 나호드까주재 조선총영사 '심국룡' 등 참가
  - 회담은 쌍방 사이의 경제협조를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토의
- 제7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10.17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10/17, 중통·중방)
  - 강석주, 이용남, 박병중, 이학권, 김문정(조선국제전람회 사장/개막연설) 등 참가
- 제9차 전국조선옷전시회(10.19~21, 700여점 출품) 개막식, 10.19 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 등 참석 下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0/19, 중통)
- 경제강국건설에 위훈을 세운 '함경남도 일꾼들과 노력혁신자·과학자·기술자들', 10.20 은하수 10월음악회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관람 및 금수산기념궁전·만경대 등 방문(10/20, 중통·중방)
- 김영남·최영남 등 黨·政 책임일꾼들, 10.21 새로 건설된 대동강 돼지공장·대동강자라공장·대동강그물공장 참관(10/21, 중통)
- 함경남도 일꾼들과 노력혁신자·과학자·기술자들, 10.21 대동강과수종합농장·대동강돼지공장 등 참관(10/21, 중통)
-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등 전국 본보기 농장들, "가을걷이에서 성과 이룩" 선전(10/21, 중방)
- 평양 '두단오리공장'(지배인 : 박성근), "대규모의 고기생산 및 가공기지로 개건" 선전(10/21, 중통)
- 함흥시 방직거리 도로포장 완공 및 강계↔만포 도로포장과 살림집·편의봉사시설 건설 등 자강도內 면모일신과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등 벼 추수 완료 등 短信(10/22, 중·평방)

#### 다. 사회·문화

##### ● 北 '간첩영화' 이례적 제작...체제이완에 위기감?(10/17,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간첩망을 색출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의 활약상을 그린 예술영화 '미결건은 없다'를 제작했다고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17일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영화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하려는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비열한 음모를 분쇄해버리는 보위일꾼들의 투쟁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에서는 하나의 미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
  - 영화를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하는 북한이 체제전복을 노리는 간첩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것은 드문 일이며, 이는 북한이 남한 드라마와 가요 등 외부문화 유입에 따른 체제이완에 위기감을 느끼고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주체의 나라' 北서 급증하는 외래어(10/18, 조선중앙통신;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당정간부들이 평양 두단오리공장을 방문했다며 "참관자들이 오리고기훈제장, 과학기술보급센터 등을 돌아보고 자동화, 컴퓨터화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데 대해 경탄을 표시했다"고 보도
  - 북한 매체가 '센터' '컴퓨터' 등을 쓰는 것은 외래어가 북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 매체는 오래전부터 트랙터(트랙터), 라디오(라디오), 바게즈(양동이) 등의 외래어를 사용해 왔음.
  -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날 세계화를 꿈꾸는 북한에서 '고려링크' '게임' '조선컴퓨터센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산업총국' '내나라정보센터' 등의 외래어가 크게 늘었다고 소개
  -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부터 산업시설의 CNC화를 선전했고, 현재 평양 시내 대로변과 공장, 기업소 등에서 CNC와 관련된 구호가 많이 붙어있으나 북한은 정보통신 이외 분야에서는 좀처럼 외래어를 쓰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6일 '영어망국병이 부른 결과'라는 글에서 남한이 무분별하게 영어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남조선에서 지금처럼 고유한 우리말과 글이 짓밟히고 그 순수성이 훼손되면 언어분야에서 민족성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조국통일 위업에 커다란 해독(害毒)"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北주민 10명중 9명 '김정일=法' 인식"(10/18, 연합뉴스)
- 북한 주민 대다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법으로 인식하고 있고,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에 미치는 뇌물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는 최봉대 경남대 교수 연구팀이 통일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서울, 인천, 대구, 광주에 사는 탈북자 80명을 설문 조사해 최근 내놓은 '북한이



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 결과 보고서 내용으로 18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응답자는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국가 차원의 도구'가 법인데, 대부분의 법이 공정하지 않고 차별 또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함.

- 우선 응답자 90.5%가 '김정일 말씀(지시)이 북한에 사는 동안 법'이라고 답했고, 74.4%는 '지도자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내용의 법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52%는 김정일의 말씀(지시)-당 명령-내각 결정-당간부 지시-헌법(일반법) 순으로 '힘이 세다'고 답함.
- 뇌물 등 불법행위에 따른 법의 무력화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47.4%)은 '형사재판시 뇌물이 없다면 도움도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 69%는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것을 불신함.

● WHO "북한 작년 결핵 재발률 18%"(10/20, 자유아시아방송(RFA))

- 세계보건기구(WHO) 결핵근절부서의 해일이서스 제타운 박사가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이 치료된 뒤 재발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 제타운 박사는 "북한에서 결핵치료 성공률은 83% 정도로 높지만 사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며 "북한 내 의료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불규칙한 것이 결핵 근절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함.
- WHO는 최근 북한의 작년 결핵발병률이 10만 명 당 345명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고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 버마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오라스콤, 北서 휴대전화 인터넷서비스 계획"(10/21, 미국의소리(VOA))

- 북한 내 이동통신사업자인 이집트 회사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
- 최근 방북했던 미국 민간단체 '조선익스체인지'의 제프리 시 회장은 "오라스콤 관계자가 북한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며 현재 서비스 시험단계라고 말했다"고 이 방송에 전함.
- 방송은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직 오라스콤의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서비스가 시작되더라도 가입자를 평양에 상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할 것으로 알려져 일반 주민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봄.
- 오라스콤은 올해 상반기 실적보고서를 통해 6월 말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66만 여명이고, 북한 주민의 92.9%가 휴대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산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일 러시아방문을 기념하여 새 우표(소형전지 3종) 발행(10/17, 중통)
- 北 적십자회 창립(1946.10.18) 65돌 즈음 '적십자활동 소개모임', 10.18 백용호(적십자회 부위원장), 조영남(국가계획위 부위원장) 등 참가下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진행(10/18, 중통)
-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10.18 사리원시 황해북도예술극장에서 첫 공연 진행(10/18, 중통)
- 北 국가우표발행국, 김정일의 訪中기념 우표(소형전지 1종) 발행(10/18, 중통)
-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단군릉 소개 다매체편집물 '옛시조왕릉을 찾아' 제작(10/20, 중통)
- 국가우표발행국, '2011항저우 세계휴한(休閒)박람회'를 기념하여 새 우표(개별우표 2종) 발행(10/20, 중통)
  - 9월 1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막된 세계휴한박람회가 북한을 비롯하여 100여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휴식은 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제로 개최, '휴한이념을 선전하고 세계의 다양한 휴한문화를 펼쳐 보이며 질 높은 휴한체험을 제공하고 현대휴한산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 "북-버마 관계 주시..우려 남아있다"(10/17, 연합뉴스)

- 데릭 미첼 미국 국무부 미얀마(버마) 담당 정책조정관 겸 특별대표는 17일(현지시간) 북한과 미얀마간의 관계를 계속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 미첼 특별대표는 국무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신의 지난달 미얀마 방문 결과와 관련, "버마와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의 투명성에 대해 얘기했으며 특히 북한과의 관계의 투명성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함.
- 그는 "우리는 매우 매우 긴밀히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어떤 분야에서는 일부 진전도 봤지만 우리가 우려를 계속 가지고 있는 다른 분야도 있다"고 설명
- 그는 현재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화가 미-미얀마 양측 간에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그들은 북한과 자신들 간에 특별한 것이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함.



- **북미 유해발굴회담 방콕서 개최(10/18, AFP통신)**
  - 미국 유해발굴 사업재개를 논의하는 북미 간 회담이 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캐리 파커 공보관은 양국 대표단이 방콕에서 회담을 시작했으며 이번 회담은 2~3일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
  - 미국은 이번 회담에 로버트 뉴베리 국방부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실종자 사무국(DPMO)과 국무부, 태평양사령부, 주한 유엔사령부 등의 관계자들을 파견
  - 앞서 미 국방부는 17일 북미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대화에서는 오로지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발굴 문제만 논의될 것"이라며 "실종 미군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인도적 사안이며, 양국 간 다른 어떤 이슈와도 무관하다"고 강조
  
- **남북미 美서 난상토론..北 '유화' 조짐(10/19, 연합뉴스)**
  - 1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대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남·북·미 3자 트랙 2' 토론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사석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天安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도 거론됐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남측 인사가 "북측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 더욱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무엇보다도 토론회의 관심은 북한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온 리중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입에 쏠렸으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선지 토론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앞서 리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남 간에 무력충돌까지 빚어져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시종 일관된 것"이라고 강조
  
- **中리커창, 23~27일 방북 후 방한(10/19, 연합뉴스)**
  -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가 다음주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리 상무부총리가 23~25일 북한을, 26~27일 남한을 찾는다"고 밝혔으며, 또한 "리 상무부총리는 남북한의 요청에 따라 정식 우호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
  - 그는 이어 "남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양국과 고위층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리 상무부총리가 남북한 방문을 통해 해당국의 영도자들과 회담하고 쌍방 관계와 국제문제 등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함.

- 그는 특히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은 유관 각 측과 적극적인 접촉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중국은 각 측이 현재의 유리한 정세를 틀어쥐고 서로 마주보면서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 美, 오바마 임기 후반기 대북라인 재정비 완료(10/20,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미국의 대북라인 재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 국무부 내 대북 라인은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특사 라인이 주축이었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가 한반도 정책라인으로서 대북정책에 깊숙이 관여함.
- 2년여를 유지하던 대북 라인업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차례대로 교체되기 시작했는데,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베이더 보좌관이 정부직에서 물러나 학계와 싱크탱크로 각각 자리를 옮겼고, 성 김 특사가 지난 6월 주한미대사로 지명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손을 뗐으며, 이런 흐름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마침내 교체됨으로써 대북라인 재편 흐름의 정점을 찍게 되었다고 뉴스는 전함.
- 당초 전공을 살려서 번스 부장관이 중동·유럽 분야를 관장하고, 서면 차관이 한반도 등 아시아를 관장하는 분담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장관급들이 참여하는 국가안보회의(NSC) 부장관급 회의에서 북한 이슈도 중요한 현안만큼 이 회의에 참석하는 번스 부장관이 전임자인 스타인버그의 바통을 이어받아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현안을 챙기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성 김 대사의 후임에는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가 자리를 메꿨고, 보즈워스 대표 후임에는 글린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사가 내정된 상태라고 뉴스는 전함.
- NSC 아시아 담당보좌관에는 대니얼 러셀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이 승진, 기용되었으며, 백악관, 국무부 라인에서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만이 유일하게 정부 출범초부터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무부는 번스 부장관-캠벨 차관보-데이비스 특별대표-하트 특사 라인으로 대북정책이 집행되게 됐다고 뉴스는 전함.
- 한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정책 실무입안자들은 바뀌었지만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라인 재정비를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의 신호로 읽기에는 무리"라며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말함.

#### ● 中 "리커창 남북방문, 한반도 평화·안정 기여"(10/21, 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상무부총리의 23~27일 남북한 방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

- 장 부부장은 먼저 "중국과 북한은 고위층 교류의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리 부총리의 북한 방문은 정치적 접촉을 통해 상호호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 규모가 미화로 34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며 "양측이 압록강 대교와 (황금평과 라선 등의) 두 곳의 경제 지역 등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

● 北中 기상부문 협조 회담록 조인(10/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기상수문국이 21일 중국 기상국과 기상부문 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6차 회담록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위신원 부국장을 비롯한 중국 기상국 대표단은 지난 17일 방북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류봉철 북한 기상수문국 부국장 등과 회담
- 중앙통신은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으나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4월 방북 직후 중국등 국제사회에 기상관측설비를 북한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2009년 중국이 북한에 기상관측설비를 기증한 전례가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





####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이 남측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조선민족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데 있다"며 "세계최대의 무기장사꾼, 평화와 안정 파괴의 주범"이라고 비난(10/17, 중통·노동신문·평방)
- "미국에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일어난 反월가시위가 전세계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는 분석 傳言(10/17, 중통·평방)
- 北 「외무성」 대변인, 10.19 美고위관리들의 '北 체제비난'(억압정책·붕괴)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不變과 대화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선군정치·핵억제력 강화' 豪言 중통 對答(10/19, 중통·중방)
  - 미국이 이처럼 의연히 상대방의 '제도붕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는 제쳐놓고 그 무슨 '핵포기'에 대해서만 떠들어 대고 있음.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7기 제6차 전원회의(10.15~18, 베이징) 소식 상세히 보도(10/19, 중통)
- 中國 국무원 부총리 '리커창'(李克強), 10.23~25 공식친선 訪北 예고(10/19, 중통·중방)
- '北-방글라데시 외무성間 협조에 관한 양해문', 10.19 박길연(부상) 및 방글라데시 외무성 대표단 등 참석下 평양에서 調印(10/19, 중통·중방)
- 【北 조선중앙통신사 논평(10.21)】 日 우익세력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최 많은 침략역사를 재현하려는 정치적 망동"으로 비난 및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도덕·법률적 의무 이행" 촉구(10/21, 중통)
- 中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 10.23 北 초청에 의해 공식 친선방문차 평양도착(10/23, 중통)
  - 여우취엔(국무원 부비서장), 장즈쥘(외교부 상무부부장), 천위엔(국가개발은행 이사장), 류지에이(대외연락부 부부장), 류티에난(국가발전 및 개혁위 부주임), 천지엔(상무부 부부장), 닝지저(국무원 정책연구실 부주임) 등 동행
  - 강석주, 김영일, 문경덕, 김성기 등이 영접
- 최영림(내각총리), 10.23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0/23, 중통)

#### 나. 6자회담(북핵)

##### ● "美, 北과 직접대화 준비 중"(10/17, 월스트리트저널(WSJ))

-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 측과의 또 다른 직접대화를 준비 중이라고 미



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

- 제 2차 북미대화 가능성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과 최근 이뤄진 남북간 대화 이후보다 확실해졌다고 WSJ은 전함.
- 특히 이 신문은 북미대화 문제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대화가 이달 말 이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과거 대북협상에 참여한 바 있고 현재도 이른바 '트랙 2' 대화에 관여하고 있는 에번스 리비어 전(前)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우리는 또다른 만남을 위한 궤도에 올라가 있다"고 말함.
- 또다른 '트랙 2' 이벤트는 17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주 조지아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학술회의인 '남북미 3자 트랙 2'에는 미국과 한국의 의원들뿐 아니라 북한의 관리들도 참석

● "제2차 북미대화 제네바서 24~25일 개최"(10/19, 교도통신)

-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가 오는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교도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
- 이번 회담에는 미측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측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이 각각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지난 7월말 뉴욕에서 열린 제1차 대화 때도 대표로 참석
- 약 3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북미대화에서는 북한의 우리눔 농축 프로그램이 핵심 의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 프로그램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은 우리눔 농축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전망

● "美 전제조건 고집하면 대결 재연"(10/19,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9일 "미국이 저들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면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위한 조선의 평화적 핵활동이 먼저 중단돼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이 전제부 고집하면 대결 재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오히려 9·19공동성명에 관통된 동시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할 필요성을 반증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조선신보는 또 "미국이 문제해결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두번째 고위급 회담에서 상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쌍방의 행동 순서와 절차에 관한 합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오바마 정권이 고위급 회담을 마련한 목적이 내년의 선거를 무난히 치르기 위한 시간지연전술에 불과하다면 조선은 일찌감치 다른 길을 택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대로 6자회담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

■ 기타 (6자회담(북핵))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6자회담 재개' 관련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세우기 위해 기본당사자들인 北-美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한다"며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거듭 요구(10/20, 중통)

### 3. 대남정세

● 현대아산, 지난주 북측과 금강산관광 협의(10/17, 연합뉴스)

- 현대아산 측이 지난주 개성을 방문해 북측과 금강산관광과 재산권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함.
-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대아산 김영현 상무(관광경협본부장)는 지난 1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측 김광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과 만났으며,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북측이 법적 처분을 단행한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광재개 등에 대해 협의
-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나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류우익 "대화채널 열기위해 여러가지 검토 중"(10/18,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18일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대화채널을 열기 위해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내 집무실에서 조지 슈워브 NCAFP 회장과 전 주중 미국대사 제이 스타플레톤 로이 키신저 연구소장 등 대표단 6명과 만나 남북관계 전반과 북한의 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류 장관은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에서 긴밀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 민화협, 北사리원에 10차분 밀가루 지원(10/19,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9일 오전 밀가루 300t을 개성 육로를 통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지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한편 민화협은 26일부터 29일까지 방북해 3차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



■ 기타 (대남)

- 南 당국의 친북·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은 "10.26 재보선을 무난히 치름으로써 再집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흥계의 발로" 비난 및 "인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 持續 선동(10/18, 중통·노동신문)
- 南 당국의 '10.4선언 발표 4돌 기념행사' 不許를 거듭 비난하며 "『6.15·10.4선언』 지지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대중적 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리자"고 선동(10/18, 중통·노동신문)
- 李대통령의 美 議會 연설(10.13, 현지시간)에 대해 "親美 충성맹세로 일관됐다"고 왜곡 비판과 '美 국방부 펜타곤' 방문 및 '韓美 FTA' 美 議會 비준 등 訪美성과 폄하(10/19, 조선신보)
- 【조평통 대변인, 李대통령 訪美 관련 중통기자 질의대답】 李대통령의 訪美 성과에 대해 "오바마행정부의 재집권선거전략에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반민족적 매국행각, 반통일대결행각"이라고 再次 비난(10/20, 중통·평방)
- 서해 5개 섬 일대의 '전력증강 및 해상사격훈련' 관련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 무력충돌의 위험을 조장시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해치는 무모한 행위"라며 "전쟁연습 중지" 요구(10/20, 중통·노동신문·평방)
-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과장 리경진, "5월 금강산국제관광 시작 이후 中·러·유럽 등 20여개국 외국인들이 금강산을 관광했다"며 "시설·관광형식 개선, 외자 유치를 위한 법률적 환경 완비 등으로 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것" 언급(10/21,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주목되는 '제네바'.. 北美 돌파구 만들어낼까>(10/17)

- 북핵 외교가의 시선이 스위스 제네바에 쏠리기 시작했음. 북한과 미국이 내주 중 열리는 제2차 고위급 대화의 장소를 제네바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임. 당초 독일 베를린과 싱가포르도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북한의 적극적 희망으로 제네바로 최종 '낙점'됐다는 후문임.
- 북미가 제네바에서 회동하는 것은 핵 신고문제 협의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회동했던 2008년 3월 이후 3년7개월만임. 제네바가 북핵 협상무대로 갖는 역사적 상징성은 꽤 큼. 제1차 북핵위기 당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담판을 지은 곳이 바로 제네바임.
- 북한의 핵동결과 핵사찰·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경수로와 중유를 지원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가 탄생한 곳임. 특히 북한 측은 제네바 합의를 "위대한 승리"라며 대대적으로 자축했을 정도로 제네바라는 장소 자체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임. 또 1997~1999년 평화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이 열린 장소이기도 함.
-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며 제네바는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단골협상 장소 순위에서 다소 밀려났고 그 대신 중국 베이징이나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등이 각광을 받았음.
- 북한 측이 미국과 대화장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네바를 적극 선호한 것도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번 고위급 대화가 사실상 6자회담 재개로의 진전여부를 가르는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으로서는 '제네바의 상징성'을 활용해 새 차원의 제2의 담판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임.
- 여기에 북한으로서는 회담의 편의성도 고려했을 것으로 추정됨. 현지 공관이 있는데다 여러 차례 북미간 협상이 진행된 바 있어 북한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편한 장소라는 얘기임.
- 당초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베를린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트랙 2'(민간) 차원의 북미 간 세미나가 열린 장소라는 점에서 정부 대 정부 간 '트랙 1' 회담의 장소로 적합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음. 싱가포르는 북한 측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양국의 협상 대표단은 1차 뉴욕 대화 때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알려졌



음. 북한 측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최선희 부국장, 미국 측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 양측에서 각각 8~9명으로 대표단이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처럼 '역사성'을 띠는 제네바에서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리지만 과연 양측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인 비핵화 사전조치를 둘러싸고 양측의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임.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 틀 속에서 ▲우리농축플로그래(UEP)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 측은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UEP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맞서고 있음.
-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사전조치 일부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과연 워싱턴이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인지는 미지수임. 일각에서는 미국이 제네바 개최 방안에 동의한 것 자체가 북한과 큰 틀의 협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현재 워싱턴의 기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 없이 북미대화가 열리는 것 자체를 냉담하게 보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임.

#### ● 김정일 "전제조건 없이 6자 조기 재개해야"(10/19)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고 9·19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 서면인터뷰에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 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 5분 전 '중대보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음. 김 위원장은 핵문제와 관련,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에 의해 산생됐다"며 "미국의 핵위협과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김 위원장의 이번 인터뷰는 오는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이 요구하는 우리농 축플로그래 가동 중단 등 6자회담 선행조건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김 위원장은 또 북한과 미국, 일본 간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며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대외정책"이라고 밝혔음. 이어 "미국이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우리를 선의로 대한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 북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둔다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북러관계와 관련, "지금 조(북)-러 사이에는 가스관 부설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양국 친선의 역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음.

####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 '닭은꼴'(10/20)>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의 임명과 교체 과정이 묘한 '닭은꼴'을 보여 화제임. 우선 재임기간이 비슷함. 내주 초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를 끝으로 물러나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09년 2월20일 방한 중이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 의해 공식임명 사실이 발표됐음. 2년8개월을 재직할 셈임.
- 지난 5일 교체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보즈워스 대표보다 열흘 정도 늦은 2009년 3월2일 임명돼 2년7개월간 6자회담 수석대표직을 수행했음. 이처럼 '장수'한 두 사람이지만 정작 6자회담 본무대에 한 번도 데뷔하지 못한 공통점도 있음.
- 2009년 12월 보즈워스 대표가 평양을 방문한 뒤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무르익었지만 천안함 사건이 터지며 대화 흐름은 돌연 중단됐고 두 사람은 장외(場外) 협상에 몰두했음.
- 전·현직이 회담 현장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비슷함. 지난달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차 남북 비핵화 회담 현장에는 위성락 대표와 함께 후임인 임성남 대표가 극비리에 참석했음.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도 보즈워스 대표와 후임인 글린 데이비스 대표가 '동시 출연'할 예정임.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교체와 맞물려 전체 북핵협상 라인에 '물갈이' 바람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북한은 6자회담 수석대표 직을 김계관(68) 외무성 제1부상에서 리용호(57) 외무성 부상에게 넘겼음. 일본은 지난 1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57) 전 지구문제 담당 대사(심의관)를 수석대표에 임명했음.
- 중국은 우다웨이(武大偉, 65)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올해 말로 65세 정년을 맞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옴. 러시아에서도 내부 인사요인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아·태 담당 차관이 연말 또는 연초에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 ● <美당국자 "2차 북미대화는 '관리전략' 차원">(10/21)

- "솔직히 관리전략(Management Strategy)이다." 미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다음주(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북미 2차대화를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를 설명하면서 '관리전략'을 강



- 조했음.
-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근 대북 정책은 흔히 '개입(engagement) 정책'으로 표현돼왔는데 이날 '관리(management)'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임. '개입'이란 의미가 종종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과감한 협상'으로 인식돼온 논란을 의식하고 의미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됨.
  - 그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직접 북한과 만나 6자회담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북한에 직접 전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우리가 개입(engage)하지 않으면 이는 북한이 계산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말이다"라고 덧붙였음.
  - 북한과의 대화채널이 닫혀있는 동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차 핵 실험을 강행했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일으킨 최근의 경험을 상기시킨 것으로 읽혔음.
  -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과의 2차 대화는 "협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음. 지난 7월 뉴욕에서의 1차 북미대화에서 북한이 이행해야 할 조치로 제시한 '비핵화 사전조치'가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협상 또는 6자회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는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한다든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 이행)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건 하는 일에는 우리는 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이에 따라 2차 북미 대화도 "탐색단계(exploratory phase)"라고 규정했음. 그는 "이번 대화를 통해 지난 7월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왔는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나. 미·북 관계

### ● 북미 유해발굴회담 방콕서 개최(10/18)

- 미군 유해발굴 사업재개를 논의하는 북미 간 회담이 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음.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캐리 파커 공보관은 양국 대표단이 방콕에서 회담을 시작했으며 이번 회담은 2~3일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음.
- 미국은 이번 회담에 로버트 뉴베리 국방부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실종자 사무국(DPMO)과 국무부, 태평양사령부, 주한 유엔사령부 등의 관계자들을 파견했음. 북측 대표단의 명단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 앞서 미 국방부는 17일 북미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번 대화에서는 오로지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발굴 문제만 논의될 것"이라며 "실종 미군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인도적 시안이며, 양국 간 다른 어떤 이슈와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미 국방부에 따르면 7천900여명의 미군 병사들이 한국전에서 실종됐음





며, 이 가운데 5천500여명이 북한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됐음. 미 정부는 1996년부터 10년간 북한에서 33차례의 작업을 통해 220여 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지만 지난 2005년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굴 작업을 중단했음.

- 미 국방부는 지난 8월초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사업 재개를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공식 제안했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달 19일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음.

#### ● 北 "붕괴론 언급 美, 대화 진정성 의문"(10/19)

-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19일 최근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신뢰조성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상대방의 제도를 헐뜯는 것을 보면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음.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입만 벌리면 억압정책이요, 붕괴요 하면서 우리를 헐뜯고 있다"며 "이는 현 미국 정부도 전임자들처럼 우리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적대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대변인의 언급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정부가 언제 갑자기 붕괴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최근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 대변인은 "가장 공고하고 독특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저들(미국)에게 유린당한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제도붕괴를 꿈꾸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해 너무 모른다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 ● <보즈워스 교체와 향후 美대북정책 · 6자 기조는>(10/20)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일(현지시간) 교체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의 재개까지 가는 긴 여정을 상징하고 본격적인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일단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교체는 개인적 변수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주한미대사를 지내고 미국내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인식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대북정책을 총괄해왔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전후로 북한과의 '단호하고도 직접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만해도 그는 북한을 알고 다룰 줄 아는 전문가로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음.
- 하지만 심각한 경제위기 등 국내문제에 발목이 잡힌 오바마 행정부의 처지는 그에게 '협상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없었음. 오히려 '전략적 인내'로 포장된 대북 정책이 구사되면서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음. 게다가 그는 터프츠대 플레처 스쿨 학장직을 겸임해왔음. 그래서 당초부터 그는 "특별대표직을 오래하기는 힘들다"는 뜻을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그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급작스럽게 바뀔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임. 남북한은 물론 일본 등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런 '일신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임.
-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런 분석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당장 오는 24~25일께 제네바에서 열릴 제2차 북미대화에 그가 미국 대표로 나가든지, 아니면 후임자로 유력한 글린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대사가 나가든지 미국이 꺼낼 카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살짝 시각을 틀어 보면 생각해볼만한 대목이 있음. 우선 시기적으로 미묘함. 김정일 국방위원장까지 전면에서 나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이타르 타스 통신과 서면인터뷰)는 전방위 대화공세를 펼치는 시점에서 미국도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향후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 "앞으로 6자회담까지 가는 국면을 여러 단계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 말은 미국이 이미 지난 7월 북한에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국면과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되는 국면이 분리돼있다는 것으로 연결됨.
- 이 소식통은 "6자회담에 대한 미국 내 열기가 그리 뜨겁지 않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하기 전에는 6자회담으로 곧바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음.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겠지만 이 소식통은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도 했음.
- 결국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모라토리엄)과 우리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사전조치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렇게 보면 2차 북미 제네바 대화도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북한의 의증을 확인하는 단계로 풀이됨. 만일 북한이 2차 대화에서 UEP 문제 등과 관련된 '무시할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하더라도 그 이후 국면은 새로운 단계로 설정하겠다는 미국의 의증이 드러남. 그럴 경우 매우 복잡하고 지루한 장기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큼.
- 후임으로 유력한 데이비드 대사가 동아태지역 문제와 비핵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미 대화는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게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근간은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등에서 거듭 취지를 밝힌 것처럼 '당근(협상)과 채찍(압박)'의 투트랙 전술이 될 것으로 보임. 지난 3년간 유지해온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의 행보에 적극 대응하는 이른바 '관리적 개입(engagement)' 정책이 상당기간 새로운 외교적 흐름을 탈 것으로 전망됨.



#### 다. 중·북 관계

##### ● 연변 삼합통상구 올해 北中교역량 287% ↑ (10/17)

- 두만강 유역의 북한과 중국 교역 거점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용정(龍井)시 삼합(三合)통상구의 북·중 교역량이 급증했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삼합통상구의 북·중 교역량이 10만5천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증가했으며 이 통상구를 거쳐 북한을 오간 양국 무역상도 2만3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 늘었다고 연변일보가 17일 보도했음.
- 이 기간 중국의 대북 수출량은 6만8천, 수입량은 3만4천이었으며 교역액은 4천800만 달러(550억 원)였음.
- 신문은 매일 철광석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꼬리를 물고 북한 회령을 통해 삼합통상구로 넘어오고 있으며 기계 설비와 농약, 식량 등을 채운 트럭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삼합통상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북한당국이 광산 자원의 수출 규제를 완화, 철광석의 중국 유입이 크게 늘었으며 중국산 농약과 화학비료, 기계 설비 등의 북한 수출도 증가 추세"라며 "교역 물량이 많을 때는 통관 처리를 하느라 통상구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음.
- 용정시는 대북 교역 활성화를 위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북한도 수출·입 화물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지하자원 수출 물량과 중국산 곡물의 수입 쿼터를 늘리는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적극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 中후진타오, 김정일 방중 재초청(10/23)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방중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다시 초청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을 친선 방문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날 오후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최영림 내각총리와 가진 담화에서 이같이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음.
- 리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김정일 총비서 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시도록 후진타오 총서기 동지가 정중히 초청한 데 대해 전하였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어 "김정일 총비서 동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고 중조친선 협조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한과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
- 중앙통신은 리 부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을 비롯한 여러 건의 합의 문건도 조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에서는 구본태 무역성 부상, 정진성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리용석 내각사무국 부국장 등이, 중국에서는 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주북한 중국대사관의 왕즈린(王治林) 경제무역 참사 등이 조인식에 참석했음.

- 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는 인민문화궁전에서 리 부총리를 위한 연회를 개최했음.

### 라. 리·북 관계

#### ● 북무역성-리 아무르주,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10/18)

- 북한의 무역성과 러시아 아무르주(州)가 18일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중앙통신은 합의서 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 평양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 서길복 무역성 부상, 심국룡 나훗카 총영사 등이 나왔고, 러시아 측에서 올렉 코제먀코 주지사와 발레리 수히닌 북한주재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했음.
- 러시아 극동의 아무르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러시아 방문때 찾은 '부레이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9월에는 북한 농업대표단이 이곳을 찾아 농지 임대를 비롯한 농업분야 협력을 논의했음. 북한은 아무르주의 농지 20만ha를 임대하기 위해 주정부와 1차 협상을 끝냈음.
- 중앙통신은 또 이날 평안남도와의 아무르주가 친선관계를 맺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아무르주 주정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에서 "북한 노동자 초청, 상호 관광교류, 에너지 분야 협력, 농지 임대, 목재 가공 협력 등을 논의했다"며 "북한 측과 경제협력에 관한 포괄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음.
- 북한은 식량난 극복을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농지를 임대해 쌀, 콩,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김정일, 방북 러시아 아무르주 주지사 접견(10/21)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일 방북 중인 올렉 코제먀코 러시아 아무르주 주지사 일행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음.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러시아 방문기간 아무르주 '부레이 발전소'를 찾았을 때 아무르주 관계자와 주민이 환대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음.
- 코제먀코 주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르주가 이 합의정신을 실현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로조 친선협조의 모범을 창조하는 주(州)가 되겠다"고 말했음.
- 접견에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당 행정부장, 태종수 당 비서, 리영철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배석했음. 김 위원장은 접견을 마친 뒤 코제먀코 주지사 일행을 위한 만찬을 열었음.
- 북한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 측과 아무르주의 농지 20만ha를 임대해 쌀, 콩, 옥수수 등의 곡물을 재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마. 기 타

### ● "30대 北관료들 싱가포르 경제 배우길 원해"(10/18)

-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경제개발 연수에 참석했던 북한 관료들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음.
- 이번 연수를 주최한 제프리 시 조선익스체인지 회장은 "북한 관료들이 주로 30대로 젊은 세대라 그런지 매우 개방적이었다"며 "싱가포르의 경제정책 중에서 어떤 점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음.
- 시 회장은 또 "북한 관료들이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과 정책이 매우 인상 깊다며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배우고 싶다고 했다"며 "그들은 한 국가의 정부가 건전한 경제정책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더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전했음.
- 스위스 개발협력청의 후원으로 10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J.Y 필레이 전 싱가포르 항공사 회장, 추아 합 빈 미국 메릴린치은행 동남아시아 무소 수석경제학자, 마누 배트카란 전 아시아자문그룹 회장, 골드만삭스사의 전 임원 등 싱가포르 경제인들이 강사로 나섰다.

### ● <남북미 트랙2, 난상토론..北대표 '유화'조짐>(10/19)

-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경제개발 연수에 참석했던 북한 관료들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음.
- 이번 연수를 주최한 제프리 시 조선익스체인지 회장은 "북한 관료들이 주로 30대로 젊은 세대라 그런지 매우 개방적이었다"며 "싱가포르의 경제정책 중에서 어떤 점이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음.
- 시 회장은 또 "북한 관료들이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과 정책이 매우 인상 깊다며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고 배우고 싶다고 했다"며 "그들은 한 국가의 정부가 건전한 경제정책과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 더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전했음.
- 스위스 개발협력청의 후원으로 10일 동안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J.Y 필레이 전 싱가포르 항공사 회장, 추아 합 빈 미국 메릴린치은행 동남아시아 무소 수석경제학자, 마누 배트카란 전 아시아자문그룹 회장, 골드만삭스사의 전 임원 등 싱가포르 경제인들이 강사로 나섰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李대통령, 한미 FTA 비준 '전방위 설득'>(10/17)

-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분주함.
- 이 대통령은 17일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방미 성과를 설명함.
-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외국순방 뒤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한미 FTA라는 굵직한 현안이 걸려 있음.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방미 기간에 미국 의회가 전례없이 한미 FTA를 조속히 처리한 만큼 이에 맞춰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국회도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임.
-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계 경제가 하락 국면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FTA를 하루빨리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18일에도 국회부의장단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원내 지도부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는 것임.
- 이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과 같은 효과와 함께 농수산업을 포함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 대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함께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 이 대통령은 17일 라디오 연설에서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 우리나라 실질 GDP는 5.7% 증가하고, 일자리도 35만 개가 생길 것"이라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력해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 <한미FTA 이틀째 끝장토론..논리공방 치열>(10/21)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1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틀째 끝장토론에서는 영세상인과 의약품, 농업분야 피해대책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음.
- 찬성 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반대 측에서 남희섭 변리사와 이혜영 한신대 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 등 양측 전문가가 3명씩 참석해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쳤음.
- 양측은 먼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피해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음.



- 남 변리사는 "WTO(세계무역기구)는 우리가 개방할 것을 열거하지만 한미FTA는 개방하지 않을 목록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유통법과 상생법에는 있는 전통산업 보호 조치가 한미FTA 협정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에 김 본부장은 "내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곳이 소매유통 부분인데 지난 6월 유통법에 강화된 보호장치가 시행되고 있고 유통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주는 상생법을 통해 조정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런 보호는 법령상 정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자 이 교수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편의적이고 안이하다. 한미FTA가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받아쳤고, 인 대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상인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의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재벌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 본부장은 "이것은 분명히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경계를 치면 충돌의 소지가 생긴다"면서 "현실적인 우려가 커 법령으로 정비가 된 것으로, 통상문제 발생시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극 지지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 진영간 감정싸움 양상도 벌어졌음.
- 이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사기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것 알고 있느냐. 한 건이라도 패하면 우리 공공정책의 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왜 재재협상을 못 하느냐"고 따졌음.
- 그러자 김 본부장은 "공공정책을 엮으면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말하는데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면서 "몇 번 말해도 학생이 못 알아들으면 꾸중을 하는데 저는 꾸중을 안 하겠다"고 꼬집었음.
- 인 대표는 "김 본부장이 유통법과 상생법을 반대했었는데 법이 되고 나니까 분쟁발생시 이걸 토대로 열심히 싸워 이기겠다고 한다"면서 "이럴 때는 빨간 구슬, 저럴 때는 파란 구슬 하면서 사람을 농락하는데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막지 말고 (미추과) 싸울 각오가 없으면 차라리 물러나라"며 시퇴를 압박했음.
- 이에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토론을 하다가 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음.
- 대·중소기업 상생 논란과 관련해 인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중소상인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대기업 편을 들은 것 아니냐. 재벌조직과 그 재벌에 딸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비판했고, 임 차장은 "동반성장이 화두인데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협력사가 건전히 성장해야 한다"고 반박했음.

#### ● 오바마, 한미FTA 이행법 서명(10/2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에 서명했음.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 12일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한 한미



- FTA 이행법은 미국의 공식법이 됐다.
- 이날 한미 FTA 서명식장에는 한덕수 주미대사,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 톰 빌색 농무장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원의 데이비드 캠프(공화·미시간) 세입위원장,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무역소위원장, 짐 모런(민주·버지니아) 의원이 참석했음.
  - 또 업계 대표로 앤드루 리버리스 다우케미컬 최고경영자(CEO), 짐 맥너니 보잉사 CEO, 우르술라 번스 제록스 CEO, 윌리엄 이어진 커렉트 크래프트 CEO, 한인 대표로 황원균 한미 FTA 비준위원회 공동의장이 참석했음.
  - 한미 FTA는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 양국 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 서한이 교환되고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공식 발효됨.
  - 미국의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과 무역으로 인한 국내 실업자 구제지원책인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도 이날 함께 이뤄졌음.
  -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FTA 등 입법화 기념 리셉션에도 들러 참석자들을 격려했음. 백악관 리셉션에는 서명식에 참석한 정부, 의회, 업계, 한인 대표를 비롯해 70~8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음.

#### 나. 한·중 관계

##### ● 中리커창, 23~27일 남북한 연쇄방문(10/19)

-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가 다음주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리 상무부총리가 23~25일 북한을, 26~27일 남한을 찾는다"고 밝혔다. 그는 "리 상무부총리는 남북한의 요청에 따라 정식 우호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남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양국과 고위층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리 상무부총리가 남북한 방문을 통해 해당국의 영도자들과 회담하고 쌍방 관계와 국제문제 등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장 대변인은 "중국은 남북한 관계 개선과 정세 완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바란다"며 "중국은 북한과 남한의 유관 각 측과 밀접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각측과 함께 6자회담의 재개와 지역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특히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은 유관 각측과 적극적인 접촉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중국은 각측이 현재의 유리한 정세를 틀어쥐고 서로 마주보면서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리 상무부총리는 북한 방문후 25일 베이징(北京)으로 복귀했다가 26일 낮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리 상무부총리는 방한에는 장즈쥘(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고위관리와 기자단을 포함해 80여 명의 대표단이 수행할 예정임. 리 부총리는 2005년 9월 랴오닝성 당서기 재임 시 방한한 바 있으며 이번 방한은 2008년 상무부총리 취임 이후 첫 번째임.

#### 다. 한·일 관계

##### ● 한일 정상, 통화스와프 700억弗 확대(10/19)

-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양국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음.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재 130억달러 규모인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음.
- 이번 합의로 한국은행과 일본은행간 원·엔 통화스와프가 300억달러로 확대되며, 기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이외에 신규로 300억달러 규모의 한은과 일본 재무성간 달러·원/엔 통화스와프가 설정됨.
- 두 정상은 또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서툼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음.
- 노다 총리는 "제3국에서의 일한(日韓) 기업의 협력사업과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룰을 만드는데 협력하고 조기에 일본과 한국이 FPA(FTA) 협상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두 정상은 아울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에 출범키로 했음.
- 특히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음.
- 이어 일본의 도서 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에 출범하기로 했음.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독도·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의제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양국 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조의궤 중 대례의궤 1책 및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을 인도했음.

#### ● 노다 日총리 "FTA, 한·일 경제기둥으로 중요"(10/19)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뿐 아니라 양국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려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방한 중인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한일의원연맹 간부들과 가진 조찬에서 한·일 FTA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 노다 총리는 "양국 관계라는 것은 문화의 바탕 위에서 경제와 안보 2개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경제의 기둥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FTA"라며 한·일 FTA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 노다 총리는 "한·일 FTA와 관련해 일본 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어느 나라든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 때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음. 그러면서 한·일 FTA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한일의원연맹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음. 노다 총리는 또한 "일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한 것을 감동적으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이상득 의원은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 일제 강점기 강탈도서를 반환키로 한 점을 거론, "일본 내 비난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도서 반환을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양국 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런 지도자의 노력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지난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에 이어 올해가 새 출발을 하는 첫해"라며 "도서 문제 등을 청산,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 이날 조찬에는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 한일의원연맹 소속 이낙연(민주당) 간사장, 전여옥(한나라당) 간사장대리, 김태환(한나라당) 수석부간사장 등이 함께했음.

#### ● <韓日정상, 경제협력 '합창'..과거사 논의 안해>(10/19)

-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간 19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협력이었음.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유엔총회 기간인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임.
-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한일 자유무역협



- 정(FTA) 체결을 서두르자는 데 합의했다. 세계적 재정위기를 맞아 이웃 나라끼리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임. 그러나 일본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위안부 보상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의제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 "경제협력 수준 높이자" 한목소리 = 두 정상은 원화와 엔화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의 5배 이상 규모로 늘리는 데 합의했음.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경제·정치·외교적으로 서로 중요하다는 공통 인식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면서 "한일관계 전반에 미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두 정상은 또 FTA 재개를 위한 실무 교섭도 서두르기로 했음. 일본이 적극적이고 우리가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였음. 이는 최근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본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FTA는 항상 양국이 윈윈해야 하고 업종별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음. 그동안 한·미, 한·EU FTA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임. 현 상태로 FTA가 체결될 경우 한일 무역역조가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됨.
  - ◇李대통령 "양국간 걸림돌 되는 현안도 있다" =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을 여러 차례 촉구했음.
  - 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한일 양국 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도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일본 극우 성향 정치인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과 같이 해마다 터지는 과거사 갈등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인 셈임.
  - 노다 총리가 취임한 후 양자회담을 위한 첫 해외 순방이라는 점에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노다 총리나 대표단이 아프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해석임.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비켜갔음.
  - 이 대통령은 노다 총리로부터 국민방문 초청을 받았지만 명확한 일정을 못 박지는 않았음.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하면 갈 수 있다"면서도 "한일 간 현안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노다 총리에게 말했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양국관계는 국민방문을 포함해서 수시로 만나자는 셔틀외교를 합의한 바 있다. 국민방문은 조건이 해결되면 가고, 안되면 안가고 이런 관계로 하는 것보다 적절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의 언급은 양국 간 과거사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선뜻 답방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

#### ● 日언론 "韓日 정상 경제공조 연출..갈등 잠복"(10/20)

- 일본 언론은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경제 분야에서는 공조를 연출했지만 독도문제와 역사문제, 위안부 문제 등은 갈등이 잠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정상회담은 통화 위기 대응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자리였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130억 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700억 달러로 확대한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대등한 통화 유통이지만 실제로는 유럽발 금융위기에서 원화의 급락을 막기 위해 한국을 지원한 것이라고 전했다.
-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영토문제와 역사인식, 독도문제와 위안부 청구권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일시 뒤로 돌려놨으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면 노다 총리가 이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했지만 화답을 듣지 못했다고 썼음.
- 요미우리신문도 노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협상의 가속 등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고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위기시 한국에 대한 통화 지원인 양국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일본이 대폭 늘려준 것은 한일 FTA 협상 환경의 정비를 위한 노다 총리의 포석이라고 분석했음. 신문은 일본이 한국 경제 지원책을 활용할 경우 FTA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신문은 이어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 대해 반일(反日)을 정권부양에 이용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고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내년에 총선과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위안부 문제 등에서의 요구를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마이니치신문은 노다 총리가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식민지시대 수탈 도서를 반환하는 등 한국에 대한 지원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신경을 썼지만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음. 이 신문은 두 나라 정상이 FTA 협상과 관련 본협상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협상 재개를 향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음.
- 우익지인 산케이신문은 노다 총리가 통화스와프 확대에 합의하고, 일부 도서를 직접 반환하는 한편, 외교에서 한국 중시의 자세를 어필하는 등 '이례적인 조공(朝貢)외교'를 폈다고 주장했음. 이 신문은 하지만 노다 총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한일 FTA는 협상 재개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여부에 대한 화답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 라. 한·러 관계

### ●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서 남북러 협력사업 논의(10/23)

- 러시아와 한국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남·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사업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했음.
- 러시아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내놓은 언론 발표문을 통해 "러시아 외교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차관이 21일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에서 김재신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회담했다"며 "양측이 러-한 양자관계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음.
- 러시아 외교부는 특히 양측이 "양국 간 정치 접촉 일정과 통상·경제 및 인문 분야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는 이어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음.
-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양국 간 주요현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 1998년 출범한 고위급 정례협의체로서, 2010년에는 제11차 정책협의회가 서울에서 개최됐음.

## 마. 미·중 관계

### ● 미국국가안보보좌관 22~24일 방중(10/18)

- 톰 도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22~2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이 18일 밝혔음.
- 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런 보좌관은 방중기간에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회담할 예정"이라면서 "다이 국무위원과 도널런 보좌관이 전 지구적이면서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회담에서는 최근 미중 간 핫 이슈인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결정, 위안화 환율 조작법안의 미 상원 통과, 남중국해 분쟁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도널런 보좌관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對)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됨.

### ● 中상무부, 美 '환율보복법' 반대 재확인(10/19)

-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潘丹陽) 대변인이 19일 미국 상원의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 평가절하 보복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음.
- 선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반대에도 미국이 환율 평가절하 보복법안을 확정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 문자 "이미 두 차례 밝힌 대로 미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동반자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문제의 법안은 국제규칙은 물론 미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의무에도 어긋난다"면서 "(미 상원을 통과한 내용대로) 해당 법안이 확정된다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이어 "그렇게 되면 양국관계는 물론 양국 국민의 이익에도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그러나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음. 선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경제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픈 대상은 미국인데 중국에 약을 먹으라는 식의 정책을 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 中, 美에 "인터넷 이유로 내정간섭 마라"(10/20)

- 중국이 자국의 인터넷 검열정책에 항의하는 미국 정부에 "내정 간섭하지 마라"고 반박했음.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인터넷 자유를 핑계로 내정에 간섭하는 행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장 대변인의 이 언급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현지시간으로 19일 성명을 통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주기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임.
- 그는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투명하며 법에 따른 언론자유를 보장하면서 국제적인 관례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 ● 中, 美에 "인터넷 이유로 내정간섭 마라"(10/20)

- 미국 태양광 패널 생산 업계가 중국 경쟁업체를 조사해 보복 관세를 부과달라고 자국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중국 업계가 반발했음.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계·전자류 수출입 상공회의소는 중국의 미국 시장에 대한 태양광 패널 수출은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류펑쉬 대변인은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면 이는 중국의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의 첫 조사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전 세계 태양광 산업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내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인 솔라월드 인터스트리즈 아메리카는 19일 "중국이 태양전지 및 패널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 덤핑 수출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미국 경쟁 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장을 제출했음.
-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달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대형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지난해 300억 달러(한화 34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액의 20배에 달하



는 액수임.

#### 바. 중·일 관계

##### ● "日 노다, 美 오바마에 5가지 선물 준비"(10/21)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등 5가지의 공약을 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참가,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육상 자위대 파견 의사를 표명할 예정임. 또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의 친권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 의사도 밝힐 방침임.
- 노다 총리는 다음달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이들 5개 안건을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할 계획임.
- 이는 양국의 현안인 오키나와(沖縄)의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가 주민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위한 노다 총리의 카드임.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뉴욕에서 있었던 노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 지연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TPP 협상 참여와 소고기 수입제한 완화, 헤이그 협약 가입 등에 대한 진전을 촉구한 바 있음.
- 일본 정부는 현재 TPP 협상 참여 여부를 노다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정상회담 전까지 결정하기 위한 내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현재 월령 2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소고기 수입을 월령 30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헤이그 협약은 이혼 등에 따라 자녀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할 때 양육에 대한 감독과 보호권을 이동 전의 나라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를 빼앗긴 부모가 반환을 제기하면 상대국은 아이를 찾아 돌려보낼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일본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